

인천경제자유구역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Development of Revitalization Plans on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박종돈(Park, Chongdon)

인천대학교 경영학부(경영혁신원) 교수

목 차

I. 서론	V. 결론
II. 경제자유구역의 이론적 고찰	참고문헌
III. 경제자유구역 현황	ABSTRACT
IV. 입주기업 실태분석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을 개선,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입주 결정은 '경영진 의지'(30.7%)가 가장 많았고, 전입 후 사업성과 변화는 '현상유지' 및 '개선' 이상으로 응답한 업체가 92.3%에 달했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응답 업체 모두가 행정지원 서비스, 인력수급 등의 항목에서 '보통' 이상 만족한 것으로 답한 반면 전입 시에는 '행정지원 미흡'의 애로를 경험했다.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들은 경제자유구역 입주에 따른 만족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향후 구역 내 산업용지의 추가 확보와 외국기업과 함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입주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행정지원, 인력수급, 산업인프라 등 입주기업들의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천경제청이 입주업체의 구체적 경영애로를 파악해 개선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주제어 : 인천경제자유구역, 만족도, 외국인투자, 지원정책

I. 서론

현재 정부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제 글로벌화에 따른 기업의 국제경영 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경제의 새로운 활력소 마련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특별경제구역을 마련하여 국가 경제발전의 토대를 세우고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2003년 동북아경제 중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선정된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사업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글로벌 신도시(국제적 규모의 공항 및 항만을 중심으로 물류, 산업, 국제비즈니스, 주거, 교육 및 의료, 관광레저 등을 위한 대규모 단지 조성 등)’를 창조하는 복합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전략의 핵심지역으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육성하고, 지금까지의 제조업 위주에서 벗어나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 국제표준에 들어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 우수인력 및 우수 다국적기업을 유치하는 포부로 추진한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목적을 안고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을 추진한 지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간 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들을 돌이켜 보면 지정 이듬해 100만 달러(11억원)에 불과했던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이 2012년 말 20억6천900만달러(2조2천억원)로 증가했고 2013년 6월말까지 FDI 총누적 신고액은 50억6천만 달러(5조4천억원)에 달한다.¹⁾

게다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이미 2009년 개발 1단계를 완료한데 이어 2014년 2단계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오는 2020년 3단계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45.2%의 개발 진행률을 보이고 있어 국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순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두바이, 싱가포르, 베트남 등 세계 각국의 외국 투자자본 유치 경제전쟁에 G2로 불리는 중국이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세워 합류함에 따라 외국기업과 투자 자본을 유치하려는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해있는 외국투자기업의 실태분석을 통해 이들의 기업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 요인별 만족도를 통해 향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 개선책이 제시될 것이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최적의 투자지역으로 각광 받아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만족도 분석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촉진 방안을 마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

1) IFEZ 개청 10주년 성과와 비전 2013.10 p87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기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35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우편 또는 팩스 접수 방식으로 실태 조사(31%에 해당하는 105개 기업 응답)를 실시하였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황해, 충북,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의 관련 보고서와 인터넷 자료, 정부 계획 및 보도자료, 각종 단행본, 기존의 연구논문 등을 수집하고 각종 통계자료 등을 통한 문헌연구를 하였다.

II. 경제자유구역의 이론적 고찰

1. 경제자유구역 의의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이란 국내 타 지역과는 차별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기업 활동과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의미한다.²⁾

즉 세제지원, 자유로운 경제활동, 질 높은 행정서비스, 편리한 생활환경이 보장되는 국제기업도시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FEZ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했었는데 중국이 개방전략으로 채택한 이후 국제적 용어로 정착하였으며, 이전에는 자유무역지역, 수출자유지역, 수출가공지역 등 주로 무역진흥을 위해 특별구역을 지정하였다.³⁾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 촉진정책의 하나로서 경제특구 제도를 추진하다가 2002년 법 제정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 촉진정책의 하나로서 경제특구 제도를 추진하다가 2002년 법 제정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전략의 핵심지역으로 2003년 8월11일 우리나라 최초로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포함하여 송도, 영종, 청라 3개 지구에 209.4km² 규모로 지정 고시되었다.

그동안 광대한 지역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생협력을 통하여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였으며 수차례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축소로 현재 송도, 영종, 청라 3개 지구 169.6km²

2) IFEZ 개청 10주년 성과와 비전, 2013.10. p91

3) 박재룡, '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방안', CEO information 364호.

로 변경되어 개발 중이다.

대내적으로 인천은 국토개발과 경제·산업발전의 축인 서해안지역의 출발점이자 2천300만명(전국의 48%)의 대규모 배후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도심과 8km, 서울 중심지역에서 50km의 거리에 있으며 인천항과 인접하고 수도권 주요 대도시에서 60~9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하다.

대외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중심지역이며 1~2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고 비행시간 3.5시간 이내의 지역에는 100만명 이상의 도시가 51개나 소재하고 있으며 총 약 20억명의 대규모 소비시장을 배후에 두고 있다.

2. 경제자유구역 추진과정

2002년 1월14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기본구상이 발표되고, 2002년 4월4일 국가경제자문회의 겸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2002년 7월29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세제지원방안과 세부실행계획(안)을 발표하였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과 세부실행계획을 위해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02년 8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2년 9월 입법예고되었고 2002년 10월 국무회의 입법 과정에서 ‘경제특별구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2002년 12월3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⁴⁾이 공포되었다.

2003년 7월1일 제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개최되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창설되었고, 8월6일 제2차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구역청을 개청하였고 10월24일 제3차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에서 부산·진해, 광양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다.

2004년 12월 31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1차 개정이 이루어졌고 2006년 11월21일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007년 8월17일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되었고 12월7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8년 4월25일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 추가로 지정됐고 2013년에는 동해안(강원)과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2013년 말 현재 8개의 경제자유구역을 개발 중이다.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1〉 경제자유구역과 해외사례 비교

구분	경제자유구역	싱가포르	홍콩	상해(푸둥신구)	두바이
유치목표	복합형글로벌도시	금융·서비스업중심	금융·서비스업중심	제조업중심	관광·물류중심
전담기관	경제자유구역청	EDB	Invest HK	푸둥관리위원회, 푸둥신구투자유치반	자유무역지대관리청
입주조건	국내외기업 무차별				
법인세율	25%	18%	17.5%	25%	0%
조세감면	법인세·소득세 등 3년간 100%, 2년간 50%(대규모투자시 5년간 100%, 2년간 50%)	사안에 따른 탄력적 혜택	없음	없음	세금 없음
현금지원	외족법상 지원	EDB지침에 따른 탄력적 지원	없음	없음 단, 하이테크 기업 등 지원사례	없음
인력	고급인력 풍부(고등교육 이수율 97%)	영어상용화(의사 소통능력 아시아 1위)	영어상용화	저렴한 인건비	외국인노동자 채용 자율
외국교육기관	비영리기관허용, 내국인 입학가능, 재정지원				
	과실 송금 불가	등록금수입 송금허용	등록금수입 송금허용	등록금수입 송금허용	등록금수입 송금허용
	NYU, 유타, 조지메이슨, 켄트대 등	국제사립학교벨트 (30여개), DUKE대, 네바다	40여개 국제학교	외국인전용 국제학교(상해 10개) 및 국내외 합작학교	런던비즈니스 스쿨, 미시건대 등 유치
외국의료기관	외국병원 설립허용	외국인진료소 운영	영어상용화로 일반병원 진료	외국인전용병동 외국인병원 설립허용	외국병원설립허용
주거	특별분양 특별 임대주택 공급	-	-	-	-
기타	정조여건 등 다소 불편	정주환경 우수(안전한 치안, 생활편의성, 영어상용화)	서구화된 관행, 편리한 도시환경 등 아시아 선호도 1위	1990년부터 진행된 선진국형 도시환경 조성 완료	중동국가 중 개방된 문화, 외국기업에 친화적

자료 : 지식경제부, 2008

3. 경제자유구역 법적 제도적 추진과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려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속히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건은 공항, 항만, 교통망,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이 갖춰질 부지의 확보 용이성 및 개발 비용 수준, 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 외국인의 투자 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지원 내용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지정·해지 신청을 하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지정 여부 검토 및 결정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거나, 필요시 산자부 장관이 지정 해제가 가능하다.

동 법률을 통해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국내기업은 입주하는 가능하나 각종 인센티브 적용에서는 제외되었다. 또한, 수도권정비법상 행위 제한 배제,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시 타 법률 인·허가 의제와 장애인, 고령자,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 유급 휴일과 파견 근로자 기간 및 업무범위 제한 조항을 배제하여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등 각종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외국학교법인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국인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One-stop 서비스 제공과 외국어 공문서 서비스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표 2>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및 지정해지절차, 투자 인센티브, 규제완화, 특례조항, 기타 지원사항과 운영조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고려해야 할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 등의 기준이 정해진 시행령은 2003년 6월30일 제정되어 2003년 7월1일 시행되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수차례 개정을 거쳐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2004년 12월, 2007년 12월, 2009년 1월에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5) 임종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31.

〈표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 항만, 교통망,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 · 필요한 부지의 확보 용이성 및 개발 비용 수준 ·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 · 외국인의 투자 수요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지원내용
지정(해지)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가 신청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지정 여부 검토 및 결정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필요시 지정 해제 가능
투자 인센 티브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기업 · 국내기업은 입주는 가능하나 각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구역내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 현금 재정 지원 · 국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규제완화 (타법률 적용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정비법상 행위 제한 배제 ·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시 타 법률 인허가 의제 · 노동 규제 완화 · 장애인, 고령자,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 배제 · 유급 휴일 등 배제 · 파견 근로자 기간 및 업무범위 제한 조항 배제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교육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허용 · 해외의료기설 설립 및 운영 허용
기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e-Stop 서비스 제공 · 외국어 공문서 서비스
운영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각종 주요 정책사항 심의 및 의결) ·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위원회 업무보좌) 및지역청(실무행정)

자료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개청백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자원부, 2009

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가 면제되고 그 위 2년간 50% 감면되는 세제지원과 국공유재산 사용 및 임대료 감면 등의 자금지원이 주어진다.

수도권 공장총량제⁶⁾, 과밀부담금⁷⁾ 적용 배제 등의 규제완화와 중소기업 고유 업종의 각종 규제가 배제된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활동에 대한 일정한 규제

6)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공장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해 건축을 제한하는 제도
 7)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

를 실시할 수 있고 외국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 교육 분야에서 특례가 적용된다.

Ⅲ. 경제자유구역 현황

1. 경제자유구역 일반 현황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규모를 살펴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169.5km²로 가장 크며 동해권이 8.25km²로 가장 작다. 또 총사업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36조3천693억원으로 가장 크고 2013년에 신설된 동해권과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사업기간 등을 확정하지 못했다. <표3~5>는 2013년 말까지 지정된 8개 경제자유구역의 일반 현황과 비전 및 도입기능 등을 정리하였다.

<표 3> 경제청별 일반 현황

구분	지정	면적	사업기간	청장	
1	인천	2003. 8. 11	169.5km ²	2003년 ~ 2020년	이종철
	부산진해	2003. 10. 30	83.1km ²	2003년 ~ 2020년	서석송
	광양만	2003. 10. 30	85.28km ²	2004년 ~ 2020년	이희봉
2	대구경북	2008. 5. 6	32.39km ²	2008년 ~ 2020년	최병록
	황해	2008. 5. 6	15.55km ²	2008년 ~ 2020년	김광태
	새만금	2008. 5. 6	50.4km ²	2008년 ~ 2020년	우시언
3	동해안권	2013. 2. 4	8.25km ²	2013년 ~ 2024년	-
	충북	2013. 2. 4	9.08km ²	-	전상헌

자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홈페이지 <http://www.feز.go.kt> 2013.6.

<표 4> 경제청별 비전

구분	비전	
1	인천	IFEZ를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
	부산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조적 성장 거점’
	광양만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물류 중심도시 건설”
2	대구경북	‘글로벌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 건설’
	황해	‘황해권 첨단산업(High-Tech Industry)의 국제협력거점 조성’
	새만금	새로운 문명을 여는 신산업과 관광산업의 허브 구축’
3	동해안권	첨단녹색소재산업육성으로 환동해권 경제중심지
	충북	친환경 BIT 융복합 비즈니스 허브

자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홈페이지 <http://www.feز.go.kr> 2013.6

<표 5> 경제청별 중점 도입 기능

구분		비전
1	인천	글로벌 교육허브·바이오중심의 산학연클러스터, 항공물류기반 클러스터·복합리조트, 금융·유통허브
	부산진해	글로벌물류허브, 첨단융합산업허브, 국제비즈니스, 레저관광허브
	광양만	동북아 물류거점, 레저·관광허브, 국제비즈니스 도시, 교육·의료허브
2	대구경북	모바일·게임산업허브, 첨단의료허브, 교육문화허브, 첨단수송부품허브
	황해	대중국 주거·상업 복합단지, 중소기업특화단지, 철강클러스터, 미래형 자동차산업
	새만금	지식창조형 신산업의 요람지, 해양중심의 국제레저관광허브
3	동해안권	동해항 중심 단위별 지구조성(4개지구)
	충북	바이오 신약 및 IT융복합 의료,동북아 항공산업을 견인할 MRO 허브

자료: 경제자유구역위원회 <http://www.fez.go.kr>. 2013.6.

2010년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 구조정비 방안을 심의 의결하여 그동안 개발 지연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비판이 제기되었던 경제자유구역의 12개 단위지구 90.4km²가 공식 해제<표 6>되었다.

또한, 2011년 11월 제4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안을 심의 의결하여 향남·지곡지구 등 2개 지구를 지정해지하고 인주·포송·송악지구 등 3개 지구는 면적을 대폭 축소하였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은 568.3km²에서 438.7km²로 22.8%가 축소되었다.

<표 6> 경제자유구역의 해제대상 잔위지구 현황

구분	변경전	변경후	지정해제	변경내용
인천	209.4	169.5	39.9	영종도 계획미수립지, 순수공항면적
부산진해	104.8	83.1	21.7	그린벨트와 마천지구 등
광양만	92.7	85.7	7.0	여수공항, 선원지구 등
황해	55.1	15.9	39.2	서산지곡, 화성향남 전면해제 등
대구 경북	39.3	34.1	5.2	성서5차산단, 수성지구 면적조정
새만금	67.0	50.4	16.6	군산배후지구
합계	568.3	438.7	129.6	

자료 :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 12곳(90.4km²) 해제 최종 확정. 2011.

경제자유구역의 구조조정 조치를 실시한 배경은 첫째 국무총리실의 평가에서 나타나 개발 수용에 비해 현재 경제자유구역이 과다 지정된 점을 바로잡고 둘째 그린벨트 등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성 결여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침해가 장기화

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각 지자체로 하여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신중히 하고 지정 이후에는 조기개발을 유도하고자 한데 목적이 있다.

2.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그동안 추진성과 및 대내외 여건을 살펴보면 추진성과의 경우 현재 27개 지구 중 19개 지구(70.4%)가 개발 완료 및 개발 중이나 당초 개발 계획대비 달성도는 45.5%로 개발이 저조하다.

주요도입기능은 송도지구의 경우 국제비즈니스와 첨단지식기반산업(IT·BT·CT)이고 영종은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물류·관광레저도시, 청라지구는 국제업무(금융)유통 및 자동차 관련 산업 유치가 추진된다.

〈표 7〉 인천경제구역 연도별 FDI현황

(단위: 백만불)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신고	1	76	86	128	118	562	502	554	2070	926	5060
도착	1	74	11	123	103	475	365	211	552	334	2248

자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013 업무보고, IFEZ 개청 10주년 성과보고서 2013.10 P262.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13년 6월말까지 총 50.6억불(신고액 기준)의 외자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초기에는 건설분야 투자에서 신 성장산업(BT·IT) 및 서비스산업(복합리조트 등) 투자로 확대 중이다.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인천항 유리한입지 • 우수하고 차별적인 인프라 • 매립지로 개발 용이 • 수도권(배후시장, 고급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기능 집적효과 부족 • M&A 대상의 부재 • 단기적 시야와 불공정계약 • 일시적 자원 부족 가능성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인천항 활성화 • 중국경제성장, 교류증대 •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경기 침체 • 사유지의 보상비 부담 • 국내기업 역차별 정책

자료: IFEZ, 개청 10주년 성과와 비전 p267

〈그림 1〉 인천경제자유구역 SWOT 분석

2009년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인 듯 2010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대비 실제 집행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여타 경자구역보다 지리적 여건 및 인프라가 양호하고, 최근 중국의 성장 및 녹색기후기금 유치 등 성장 잠재력 충분하다. 다만, 글로벌경제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은 활성화에 장애 요인으로 분석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비전 및 목표를 살펴보면 우선 인천 경자구역의 지리적 여건 및 성장 잠재력을 감안해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글로벌 전진기지로 조성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또 국제비즈니스 도시 조성 및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육성을 중점 목표로 설정했으며 추진전략도 단계별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비전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전진기지
----	-----------------

목표	국제비즈니스 도시 조성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육성
----	--------------	----------------

추진 전략	구 분	단계별 세부추진과제		
		단기('13~'15)	중기('16~'18)	장기('19~'22)
		개발활성화 및 재원조달	규제완화	고층처리 PM 전담제 운영, 규제 발굴 및 지속 개선 건의
	재원조달 다양화	국비 확보 확대 및 용지 매각 활성화	지방채 발행 및 대물변제, 인천투자펀드 조성	
전략적 투자유치	글로벌비즈니스 환경 조성	외국인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중점 유치 혁신적 Cluster구축 및 현실적 인센티브제도도입		
	IFEZ Global Brand화	해외홍보 및 IR 강화	지속적 국내외 홍보 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	
구역관리·운영 체계개선	전문성· 자율성 강화	역량 있는 전문계약직 채용 확대 및 주기적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Governance 정립	중앙-지자체-민간 간에 협력체계 강화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5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2013.7. P57.

<그림 2>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 비전 및 목표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은 중점유치 업종으로 항공 제조 및 서비스, 육상·해상·항공의 연계 화물 등 항공물류와 바이오 의약, 국제병원 등 바이오, 국제금융, 국제기구, 컨벤션, 테마파크, 카지노 등 지식서비스 산업을 선정, 중점 유치에 나선다.

개발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주 외투기업에 대한 밀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충처리 PM전담제 운영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해 국비 확보 및 지방채 발행, 인천투자펀드 조성 등을 함께 추진하는데 인천시가 일부 자금을 직접 현금 출자(300억원)하고 민간투자자의 자본(580억원)을 유치해 민관합동으로 기금을 조성을 추진한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청라지역의 경우 인천공항공사(IBC-II)와 리포&시저스(미단시티)가 문광부에 복합리조트카지노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인천투자펀드 법인 설립 및 사업 추진, 청라 금융타운 조성, 국제업무지구 테넌트 유치 등을 통한 금융·기업 허브 조성과 함께 신성장 산업 글로벌 거점화, 서비스산업 전진기지화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GCF 유치를 계기로 송도를 유망 서비스산업(의료, 교육, MICE, 관광, R&D 등) 발전 허브를 지향하는 등 전략적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IV. 입주기업 실태분석

1. 입주기업 현황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입주기업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후 2013년 상반기까지 IFEZ로 전입한 기업은 352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송도테크노파크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모두 195개에 달한다. 총45만3천523㎡ 규모의 인천테크노파크 송도 사이언스빌리지에서 전자정보(IT), 신소재, 바이오(BT), 정밀기계·메카트로닉스(로봇포함) 등 첨단 기업연구소가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기업이 195개이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등을 통해 입주한 기업이 송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을 포함해 57개에 달하며 이들 기업이 신고한 FDI는 34억4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경제청이 GCF 유치효과 극대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쇼핑 관광 외식)과 중국 일본의 투자유치에 나서면서 일본 세포배양배지 제조사인 아지노모도제넥신(주)과 티오케이첨단재료(주), 중국이 액정평판디스플레이어에 공동 투자한 한울하이텍(주) 등이 입주했다.

특히 인천경제청의 R&D 유치 계획에 따라 제이비씨 생명과학연구소와 유타-인하DDS 및 신의료기술개발공동연구소는 물론 뉴욕주립대와 켄트대, 유타대학교가 개교했거나 2014년 개교를 위해 설립준비가 한창이다.

이밖에 송도국제도시에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인 포스코건설과 R&D 목적의 아시아나 IDT, CJ시스템,포스코엔지니어링,코오롱글로벌, 코오롱위터앤에너지, 효성ITX 등 셀트리온 등 국내 기업도 157개에 달하며 2014년 입주예정인 대우인터내셔널, 엠코테크놀로지,패션그룹형지 등을 포함하면 송도국제도시 입주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표 8〉 기업의 업종별 분류

업종	제조업	도소매업	물류업	건설업	서비스	기타	합계
업체수(개)	45	17	2	15	14	12	105
비율(%)	42.6	16.7	1.9	13.9	13	12	100

〈표 9〉 기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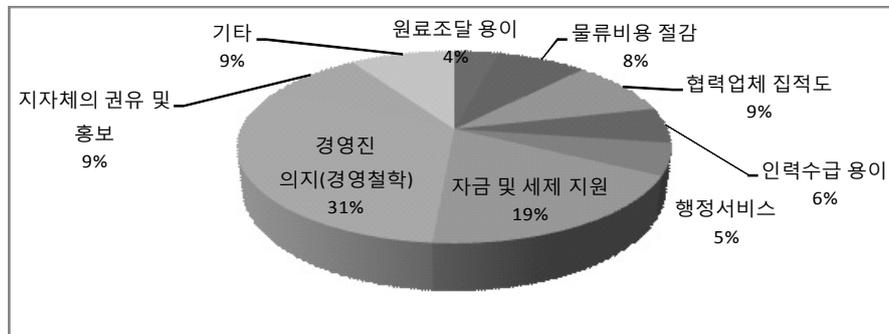
기업규모	10명미만	10~50	51~100	100~300	300명 이상	합계
업체수(개)	52	36	9	2	6	105
비율(%)	49.5	34.3	8.6	1.9	5.7	100

1. 실태분석

1) IFEZ로 전입을 결정한 요인

조사기업 30.7%가 경영진 의지에 따라 전입을 결정했다고 답변했으며, ‘자금 및 세제 지원’이라 답한 기업도 18.7%, ‘협력업체 집중도’ 라 답한 기업도 9.3%나 있었다.

이밖에 IFEZ 전입을 결정한 이유로 ‘지자체의 권유 및 홍보’ 8.7%와 ‘물류비용 절감’ 8%, ‘행정서비스’ 5.3%, ‘원료조달 용이’ 4% 순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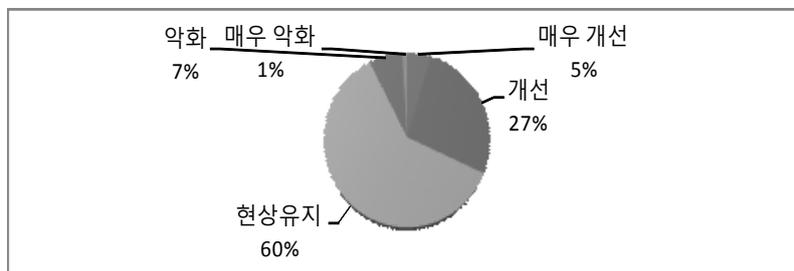
〈그림 3〉 IFEZ 전입결정 요인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경영진의 의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조업에서는 경영진의 의지(32.8%) 이외에도 자금 및 세제 지원(28.4%)이 전입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는 협력업체 집적도(20.0%)가 전입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 IFEZ 전입 후 사업성과 변화

IFEZ로 전입 이후, 기업의 사업성과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 ‘현상유지’라고 응답한 업체가 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업체가 26.9%로 무려 86.9%가 전입 후 성과가 상승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매우개선’(5%), ‘악화’(7%), ‘매우악화’(1%)라고 응답한 업체도 있지만, 전입 후 사업성과 변화를 묻는 설문에선 조사기업의 32%가 개선 또는 매우개선이라고 응답해 IFEZ 입주가 기업들에게 사업성과에 대한 변화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IFEZ 전입 후 사업성 변화

3) 행정지원 서비스 만족도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5.9%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만족하고 있다는 업체도 21.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응답기업의 12.7%는 ‘불만족’으로 답했으며 ‘매우 불만족’하다는 기업도 4.9%로 적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표 10〉 행정지원 서비스 만족도(업종별)

구분	전체	제조업	도소매물류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기타
매우 불만족	4.9	6.8	0.0	7.7	8.3	0.0
불만족	12.7	11.4	23.5	0.0	16.7	9.1
보통	55.9	52.3	64.7	69.2	66.7	45.5
만족	21.6	27.3	11.8	23.1	0.0	18.2
매우 만족	4.9	2.3	0.0	0.0	8.3	2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다수 업종이 보통이상(82.4%) 만족하고 있으며, 제조업 18.2%, 도소매 및 물류업23.5%, 건설업 7.7%, 사업서비스업 25%, 기타 9.1%는 행정지원 서비스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

4) 인력 수급 만족도

수도권에 위치함은 물론 도시철도와 광역교통망은 물론 전국 고속버스가 연결돼 사통팔달의 요지로 꼽히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기에 인력 수급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기업의 무려 76.5%가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불만족(18.6)’과 ‘매우 불만족(4.9)’ 의견도 23.5%나 나온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5) 원자재 조달 만족도

IFEZ 입주기업들의 원자재 조달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서 ‘보통(70)’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만족(15)’, ‘불만족(11)’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응답기업의 13%는 ‘불만족(11)’과 ‘매우 불만족(2)’으로 답한 업체도 있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및 물류업에서 22.2%가 불만족했고, 사업서비스업도 27.3%가 불만족 또는 매우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6) 물류비용 절감 만족도

물류비용 절감 만족도는 58%가 ‘보통’이라고 답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만족’하다

고 응답한 업체는 18%, '매우 만족'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4%로 모두 80%에 달하는 업체가 물류비용 절감에 만족한 것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불만족' 18%, '매우 불만족' 2%로 20%의 기업들은 IFEZ 입주가 물류비용 절감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 및 물류업체의 66.7%, 사업서비스업체 72.8%, 건설업 83.3%, 제조업 81.4%가 물류비용 절감에 만족한 것으로 응답했다.

7) 자금 및 세제 지원 만족도

'보통'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50%로 가장 많고 '만족(18.6)', '불만족(14.7)', '매우 불만족(9.8)', '매우 만족(6.9)'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항목에 비해 '자금 및 세제지원 분야'는 입주업체들의 불만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이외 모든 업체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는데 도소매 및 물류업은 불만족하다는 업체가 55.5%였고 사업서비스업(27.3%)과 제조업(20.5%)도 상당수 업체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

8) 협력사와의 연계성 만족도

'보통(60)', '만족(22)' 순으로 조사업체의 87%가 보통 이상 만족으로 응답했다. 특히 협력사와의 연계성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은 입주기업들이 송도로 전입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협력업체 집적도'가 기업 경영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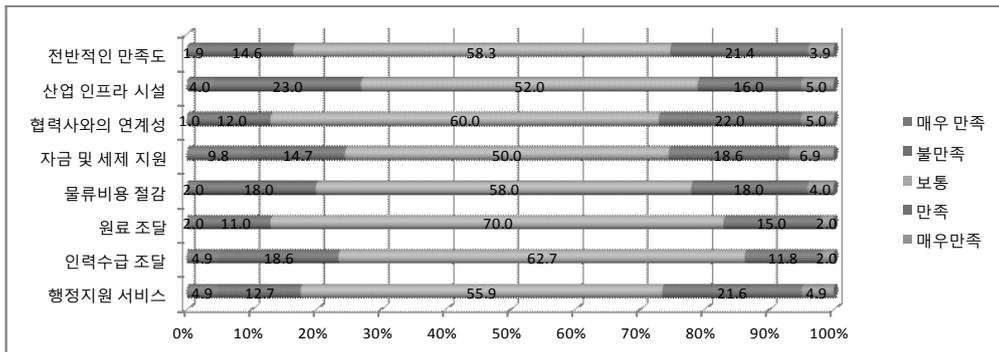
건설업의 경우 91.6%, 사업서비스업 90.9%가 협력사와의 연계성에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77.8%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표시한 도소매 및 물류업은 대부분 만족도를 표시한 타 업종에 비해 22.2%에 해당하는 도소매 및 물류업체가 협력사와의 연계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9) 산업인프라 시설 만족도

'보통(52)', '만족(16)', '매우 만족(5)'로 대체적으로 만족하지만 '불만족(23)'과 '매우 불만족(4)'도 27%나 됐다. 업종별 산업인프라 시설 만족도를 살펴보면 건설업의 만족도는 99.9%로 높았지만, 제조업(35%)과 사업서비스업(45.5%)의 만족도는 타 업종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0) 전반적인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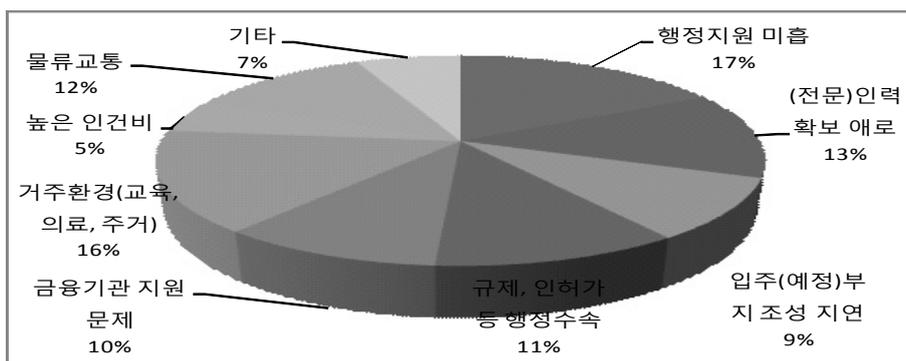
송도 입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58.3)’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다음은 ‘만족(21.4)’으로 조사됐다. ‘불만족(14)’, ‘매우만족(3.9)’과 ‘매우 불만족(1.9)’도 소수 있었다.



<그림 5> IFEZ 입주기업 전반적인 만족도 등

11) IFEZ 전입 추진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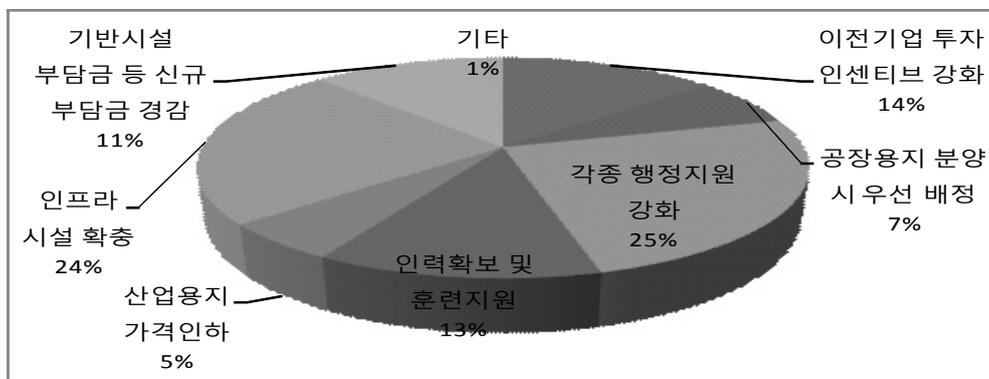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입 시 애로사항은 행정지원 미흡(17.2), 거주환경(교육 의료 주거)15.6%, (전문)인력 확보 애로(13.3) 순으로 나왔다. 또 물류교통(11.7), 금융기관 지원 문제 (10), 입주(예정)부지 조성 지연(9.4), 높은 인건비(5)라고 응답한 업체도 있었다.



<그림 6> IFEZ 전입시 애로사항

12) 기업유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과제

IFEZ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설문에서는 각종 행정지원 강화 24.9%와 인프라 시설 확충 23.9% 2가지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고, 이전기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13.7), 인력확보 및 훈련지원(12.7), 기반시설 부담금 등 신규 부담금 경감(10.7), 공장용지 분양 시 우선 배정(7.1), 산업용지 가격인하(5.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7〉 IFEZ 기업유치시 필요정책 과제

V. 결론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외국기업을 얼마만큼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 기업의 투자 여부는 무엇보다 경제자유구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인지가 우선적인 고려 요인일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판단은 인센티브, 제도적인 지원을 떠나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에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느냐가 기준점이 될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입주업체들은 만족하고 있다는 업체(‘만족’ 21.4%, ‘매우 만족’ 3.9%)가 만족하지 않다는 업체(‘불만족’ 14.0%, ‘매우 불만족’ 1.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입한 후 사업성과가 개선된 업체(개선 26.9%, ‘매우 개선’ 5.0%)가 악화된 업체(‘악화’ 7.0%, ‘매우 악화’ 1.0%)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기업 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보여 향후 인천경제자유구역

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청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기업 유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인천경제자유구역, 특히 송도지구에 입주를 원하는 업체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송도지구 내 기업을 유치할 만한 산업 입지가 부족하다. 따라서 기업의 입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매립되고 있는 11공구에 산업 용지를 확대하는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산업 용지를 추가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 입주한 국내 업체는 대부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에 부지를 확보한 업체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 지분 규제 등으로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고의 기업 환경을 갖춘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좀 더 많은 중소기업이 입주하여 중소기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한 외국 기업과 함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중소기업에 한하여 입주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업체의 만족도는 대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행정지원 미흡, 인력 수급, 산업인프라 등에 대한 각론에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천경제자유청 차원에서 입주업체의 구체적 경영 애로를 파악하여 개선하는 시스템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자금 및 세제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많은 기업이 투자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전입해 오는 기업들을 위한 자금지원 및 세제 혜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관한 기존의 조례를 보완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향후 좀 더 완벽한 입주기업 만족도 조사는 좀 더 많은 업체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많은 연구자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만족도에 대한 좀 더 진전된 연구를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박추환,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평가와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2006.
-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백서 2013
- 손상락,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합리화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2011.
- 이수행외(공저) 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거점화 전략연구, 경기개발원 2009.
- 이창재,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임종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 인천광역시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2013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백서 2007.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FEZ 5년 성과와 비전 2008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FEZ 1단계 성과 및 2단계 발전전략 2010.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FEZ 개청 10년 성과와 비전 2013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FEZ 사업체조사보고서 2010.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FEZ 저널 2013년 05~11월호 2013.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FEZ 사업체조사보고서 2010.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FEZ 저널 2013년 05~11월호 2013.
- 정대철외(공저)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하동)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2008.
- 경제자유구역기획단(<http://www.fez.go.kr>)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http://www.gfez.go.kr>)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http://www.dgfez.go.kr>)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http://www.bjfez.go.kr>)
 - 송도국제신도시(<http://www.songdobd.co.kr>)
 - 인천경제자유구역청(<http://www.ifez.go.kr>)
 - 인천광역시(<http://www.incheon.go.kr>)
 - 인천도시공사(<http://www.idtc.co.kr>)
 - 황해경제자유구역청(<http://www.yesfez.go.kr>)

ABSTRACT

Development of Revitalization Plans on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Park, Chongd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bstantially survey the satisfaction of resident companies in Incheon Free Economic Zone to improve the investment environment of Incheon Free Economic Zone to attract more resident companies. This study implies that additional industrial lots should be secured and the restrictions against small/medium companies should be alleviated so they can grow into strong companies considering that the resident companies in Incheon Free Economic Zone are highly satisfied with their business in Incheon Free Economic Zone.

As resident companies' satisfaction with administrative support, recruitment, and industrial infrastructure is low, Incheon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should understand and improve the specific complaints of resident companies.

Key Words : Revitalization Plans, Free Economic Zone, Investment, Business

* Professor, Dept. Business Administr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